

구약성경 전체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수천년 간의 갈망과 예언의 집합체입니다. 구약성경에는 150편의 시편이 있으며, 그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의 함성"(시편 100편)과 "가득한 웃음"(시편 126편)으로부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시편 23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느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니 그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느님이시니라"(시편 42편)까지.

시편은 인간의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반영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각 감정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을 채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누가복음 1:28)라는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주의 하느님께서 육신을 입으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우리 존재의 모든 구조도 그와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묵주기도는 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원래 이름은 천사시편집(Angelic psalter)이었는데, 이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이 150편의 시편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를 시편집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묵주기도는 15개의 신비와 150개의 천사의 인사(성모송으로도 알려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천사의 인사/성모송은 150편의 시편에 대한 응답입니다. 각 시편은 하느님의 도래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루카복음 1장 28절은 바로 그 역사적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5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도신경
2. 주기도문
3. 성모송 (루카 1:28, 42)
4. 영광송 (삼위일체께)
5. 거룩하신 여왕님 (마지막 기도)



사도신경 -

이 기도문은 성경보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초기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을 요약하여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책은 손으로 쓰여졌으며, 너무 비쌌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도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논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미사에 모일 때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암송하는 것은 신앙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비가톨릭

신도들이 여전히 회중에서 이 기도문을 바칩니다. 원래 15가지 신비는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탄생까지, 그리고 그의 슬픔에 찬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따라갑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환희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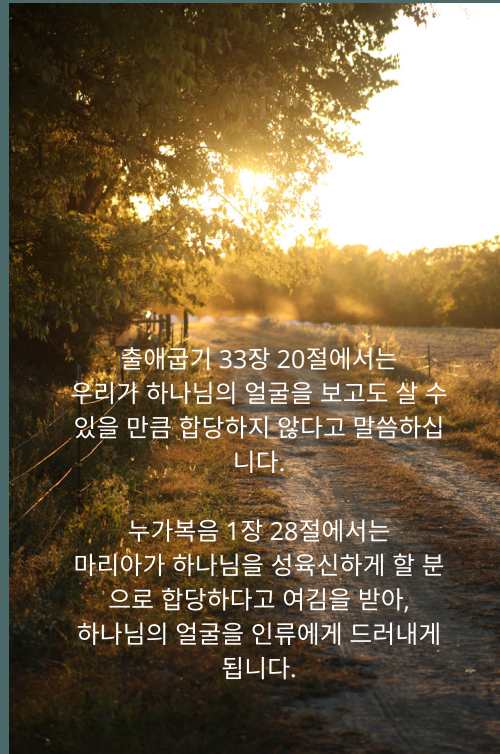
- 주님의 수태고지/잉태
-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을 방문함
- 그리스도의 탄생
- 예수님이 성전에 바쳐짐
-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함
- 화요일과 금요일: 고통의 신비
- 동산에서의 고뇌
- 채찍질
- 십자가를 지심
- 가시 면류관 씌우심
-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
- 수요일과 일요일: 영광의 신비
- 부활
- 그리스도의 승천
- 오순절 성령 강림/교회 탄생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
- (묵시록 12:1-5)
-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으로 면류관 받음

목요일: 빛의 신비
요한 바오로 2세가 추가한 빛의 신비를 왜 바치나요? 2002년 요한 바오로 2세는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 문화에서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는 세례, 혼인의 신성함, 정교회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진정한 현존(요한 6,35-66)에 부응하기 위해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성모송이 가톨릭 기도문일 뿐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주님의 도래를 알리는 기도였기에 모두가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성모송은 루카 복음 1장 28절과 1장 42절을 낭송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엘리사벳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종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성모송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열왕기상 1장에서 밋세바 왕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간청서를 가져왔을 때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간청이었기에, 그 간청을 듣기도 전에 허락합니다.

열왕기상 2:20: 그러자 밋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보았던 유일한 사람, 그의 어머니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와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이는 요일별로 정해진 특정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무한한 숨겨진 열매를 담고 있는 특정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원래 묵주기도는 15개의 신비로 나뉘었고, 최근 5개가 더 추가되어 총 20개의 신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 다섯 가지 신비를 기리고 묵상하는 데 바칩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반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마음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 숨겨진 열매를 발견하고, 그분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인류와 하나 되게 한 기도로 그 열매를 기립니다. 이는 현실과 우리 존재의 전체적인 구조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숨겨진 신비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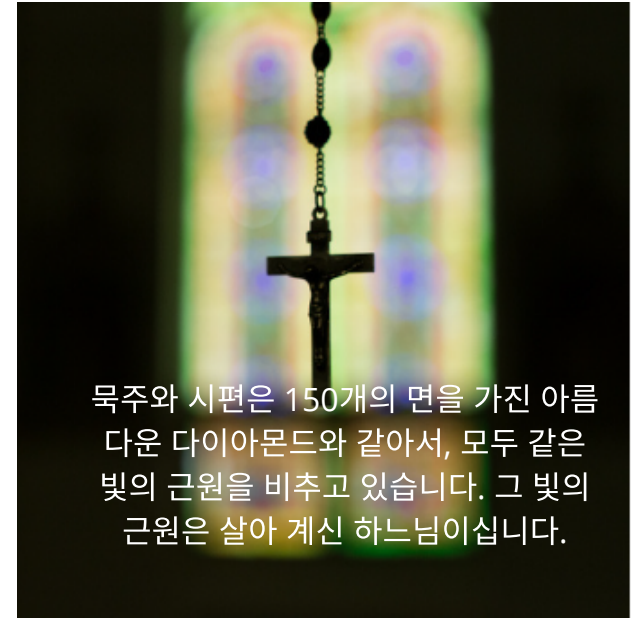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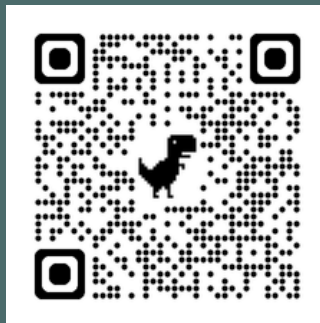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할 분으로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인류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평신도 도미니카인에 의해



www.Letuspraytherosary.com



묵주와 시편은 150개의 면을 가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모두 같은 빛의 근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묵주 기도 -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묵주는 예언의 시대부터 성취의 시대까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묵주는 우리를 그리스도 곁에 데려가고,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그분과 함께 걸으며 현세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초대하는, 깊고 명상적인 기도의 경험입니다.